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이 효 성 의원

“과학과 산업의 도시에 걸맞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의 민자유치, 재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산단내 업종전환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단 버스노선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족산이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행정 역량이 요구됩니다.”

“대덕구에 시립 공공기관 이전, 설치가 절실합니다.”

“학교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학교 구성원 조직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재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 효 성 의원

◎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신탄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발생 후 인근 학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주신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후된 대화동 1·2산업단지 관련하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정책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확정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신규 조성사업은 대전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과 산업의 도시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지만 대전시 본의와는 관계없이 민선 8기 핵심공약인 5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주로 산업단지의 양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노후된 대전 대화동 1·2산단에 대한 리노베이션 의지와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산업계와 지역사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산업현장과 기업인들은 노후산단에 대한 발전과 투자계획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실장님!

우리 시 대화동 1·2산업단지 등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또는 사업진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2산단은 공해와 도심과 인접하여 토지이용의 한계와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각종 기반과 시설을 지원하는 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9년 1·2산단이 9월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고 같은 달 28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1·2산단을 혁신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해 국토부와 산자부의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875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나 행정체계의 구축 상황,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 사업발굴 현황, 지방비 부담이나 민자유치, 재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1·2산단에 찾아온 성장 거점의 기회가 실패로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산단에는 아스콘 및 시멘트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에서의 부적합 업종과 입주 제한업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대전시 고시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에는 2026년 8월까지 제한업종의 유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면적만 23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제한업종 기업의 이전 및 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계획, 대상 기업과의 이전 협의 진행 등을 면밀히 준비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노후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시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1·2산단 내 버스노선 확대, 대안 및 주차환경도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1·2산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으로 316번, 616번 버스가 운행되지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 및 유성구 방향에서 진출입하는 노선이 없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1년 12월 한샘대교가 개통했지만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고 있는 것에 개선이 요구되며 마을버스 형태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고 대전산단재생사업을 통해 대화동 등에 공영주차장 4곳이 지난해 조성되었습니다.

4개소 약 1천 1백여 개 주차면을 확보했지만 산단 내 도로망 확장이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산단근로자를 위한 버스노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산단 내 일방통행 등 전문가집단의 교통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택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족산은 대전 시내와 근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계족산

항톳길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네 번 연속 선정되어 대전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명소입니다.

시장님도 계족산을 휴양림으로 지정하고 향토식물원, 친환경놀이터, 캠핑장 등 산과 어우러진 명품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휴양 거점도시로 탈바꿈에 있어 계족산 휴양림 등의 조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이를 묶어 관광자원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이곳을 대덕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로 거듭나도록 행정역량이 필요합니다.

계족산 휴양림 조성이 장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바, 휴양림 조성계획 발표 이후 그동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또한 계족산과 대청호 연결도로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장동~이현동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단절된 지역을 잇고 접근성을 높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추진단계가 관계 부처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 산하 공공기관 대덕구 건립·이전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서는 대전시에 계신 지가 반평생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라 대덕구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현재까지 침체의 늪에 있습니다.

대전의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해야 대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대덕구에 방문하셨을 때 균형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대덕구 재창조 의지를 보여주셨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 내 지역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현재 대덕구에는 시 산하 공기업,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어느 지역보다 절실합니다.

시립도서관, 시립복지관, 시립미술관 등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곳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높은 만큼 대덕구에 ‘시립’ 명칭이 붙는 기관 건립·이전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에 식재된 수목은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학습공간 제공과 함께 정서순화를 돕고 더 조화로운 녹지 제공으로 학습 피로도를 경감시켜 줍니다.

하지만 배움터이자 추억의 공간인 학교 운동장은 축소되고 학교 역사와 함께해 온 수목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 3백여 곳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수목이 대부분 30년이 넘어 고령거목화되었을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목은 항상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계절별, 수종별 관리유형이 다르므로 1년 이상의 생태주기별 집중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개별적인 전문진단과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교육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수목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수목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탄소중립 및 수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관리지침, 학교에 식재된 수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목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수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는 교사, 공무원, 공무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진 삼원조직으로 분야별 업무 이해득실에 따라 참여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가 상충되는 점점 및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갈등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7조에선 정원관리의 일반원칙을 두고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인력운용계획 등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현장에서의 갈등은 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협력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사,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 갈등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과 함께 향후 학교 신설, 폐지, 퇴직, 사업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공무원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직종전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서는 대전1·2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사업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 재생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소를 위해서 2009년 9월 국토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총사업비 3,071억 원을 투입해서 대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시비 450억 원을 투입해 한샘대교를 개통해서 대전산단에서 둔산동 주거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정비 28개 노선 12.9km에 대한 공사를 2017년 1월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둘째, 2021년 7월 착수한 LH 전면매수구역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말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24년 11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전산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4개소에 총 751면을 계획했으며 대화동 복합문화센터 내 주차장 1개소는 금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117면의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차용 건물 3개소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5개소에 14만 3,60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3개소 7만 7,9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163억을 들여서 보상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140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해서 1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서는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산업추진 전담조직 구성이나 확대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 사업발굴 현황, 지방비 부담이나 민자유치 등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으로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대전산단 혁신계획추진단을 2022년 8월에 구성해서 전략사업추진실 산업입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발족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에 시청 사무관 두 명을 파견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한남대학교 등 2개 지역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등 3개 관리기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대덕구청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대전산단 대개조 세부사업은 정부 메뉴판사업 42개 중에서 대전산단과 연계산단, 즉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 33개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4개를 포함해서 총 37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75억 원으로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368억 원, 기업체 자부담 등

민간자금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단 대개조사업은 지원대상 지역 선정만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으로 신규 국비사업의 발굴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과 협력하고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기이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비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단대개조사업 선정 후에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국비 2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계속 방문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가면서 실무 TF 회의 등을 통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 대상기업과의 이전 협의 등 준비상황 및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준비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을 통한 입주 제한업종 관리로 2012년 9월에 134개사에서 금년 5월 현재는 74개사로 총 60개사가 업종 변경 및 이전하는 등의 감소 효과가 실제 있었습니다.

대전산단 내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도심부적격 업체인 아스콘, 레미콘 등 업체 이전을 위한 대체용지 마련을 검토하였으나 사실 레미콘 업체들은 이전 등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대체용지를 마련하더라도 강제이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주 제한업체의 자발적 업종 변경과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제한업종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현재 입주 제한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도심 부적합도가 높지 않은, 좀 낮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기간 연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대전산단 갑천변 편입지역, 그러니까 갑천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거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활성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단계 사업인 LH 전면매수구역이 한 3만 평 되고 거기에 인접한 1만 6,0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갑천변 오른쪽 10만 평 중에서 4만 5,000평은 우선 업종전환을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평 중에서 5만 5,000평 정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2035년까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있는 아스콘, 레미콘 회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갑천변 편입지역 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업단지 안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단 내부에 폐업이 돼서 공장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부지들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2개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완공이 돼 있고 또 하나의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지산센터의 유치를 노력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증설이 필요한 업체들이 계속 우리 시에 요청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이산단의 폐업 공장부지를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업종전환을 할 건데, 잘 아시겠지만 구로공단의 변화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과거에 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폐허화됐었는데 거기에 지산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고 해서 많은 IT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대전산단을 첨단업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산단 내 버스노선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 그리고 전문가 교통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버스노선 개선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전산단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앞으로 서구, 유성구에 거주하는 산단 종사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연말에 1개 신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 노선은 유성구 원내동에서 도안동 그리고 둔산동을 거쳐서 대전산단을 경유해서 대한통운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이나 둔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전산단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둔산 인근지역을 돌 수 있는 셔틀버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통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추가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성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지적에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 계족산 휴양림 개발 그리고 관련 도로망 구축, 시 산하 공공기관 건립 또는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안에 대한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계족산 휴양림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족산 휴양림은 지난 2022년 12월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장동 산림욕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산림욕장하고 휴양림의 가장 큰 차이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는 휴양림 속에 숙박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계족산 주위의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휴양단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21만 평 규모고요, 사업비가 29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 완공 시기는 2026년 말 정도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은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4월에 지방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되는 계획 수립 또는 설계용역이 올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도 같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유토지 매입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 185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매입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장동지역에 장동문화공원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문화공원 그리고 그 주위에 목원대학교 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디마을 이라든가 관련되는 지역에 기존의 자원과 잘 연계해서 계족산 휴양림이 체류형 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자치구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동하고 이현 간 도로개설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하고 이현동 구간을 연결하는 1.7k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현재 계족산, 그러니까 장동지역에서 대청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탄진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리를 보면 한 17k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서 이 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동거리나 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출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248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신청을 했고 현재 중앙부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고 현재 동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전체 사업규모 파악 후에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심사결과가 잘 나오면 국비사업 반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다시 또 탄약창이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사업들로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어쨌든 이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 산하 ‘시립’ 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거나 이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도시에서 도시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의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 그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장점이나 잠재력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기관이 부족하거나 낙후돼 있거나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우리에게 유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런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구역도 있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대덕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해서 연축동 지역하고 역세권 두 군데를 국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를 보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기관들이 이전된 경우가 있어서 10개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혁신, 또 지역발전에 연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들을 먼저 유치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원도심, 같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퇴근 거리가 비슷한, 대도시 안에서 중구에 있는 걸 대덕구로 옮긴다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에 내려오면 따라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것도 건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존의 기관을 쪼개는 그런 형태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전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담을 수 있는 연축지구 개발이라든가 현재 대덕구청사, 오정동청사 이전에 대해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을, 개발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일단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시설이나 기관 유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들을 이전하는 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축, 건물의 여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적으로 잘 살피가면서 하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대덕구청장님 뵙고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대덕구에서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심사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균형발전하면서 적합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위치해서 지역발전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과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 내 수목이 크고 수종이 다양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관내 300여 개 학교에 대한 수목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해서 교내 수목의 종류와 위치 등이 표시된 수목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경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목 전정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시설 시행계획에 학교 내 수목관리를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계획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 교육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등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및 근무환경 등의 진단을 위해 조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소수직종에 대해 유사직종군으로 직종전환을 유도하고 직종 내 다양한 근무형태와 세부직종명으로 혼재된 직종은 직종 단일화 추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현원은 2022년 대비 현재 5,168명으로 이미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인 4,536명을 초과하여 인력증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체결된 단체교섭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에는 근로자 동의라든지 노조와의 협상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조직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 시·도의 교육공무직원 직종 통합 방법 및 운영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업무접점이 많은 돌봄 분야에 우선 집중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